

제우스, 포스코 ICT 와 로봇사업 협력 MOU 체결

LCD, 태양전지 및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기업 제우스(079370, 대표이사 이종우)가 포스코ICT와 산업로봇사업 다각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ICT 판교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제우스 이종우 대표이사와 포스코ICT 손건재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사의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자료: 포스코ICT 판교사옥 협약식에서 제우스 이종우 대표이사(좌)와 포스코ICT 손건재 대표이사(우)

이번 협약은 제우스와 포스코ICT가 발굴·개척한 수요처에 공동으로 상품 제안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활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기점으로 앞으로 포스코ICT의 산업용 로봇통합운영 솔루션 '아이라스(IRaaS)'와 제우스의 산업용 로봇 '제로'는 상호 연계된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제우스는 최근 산업용 로봇 '제로' 출시 등 국내외 시장 공략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고도 산업화된 한국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신념 하에, 올해는 한국 내 판매망 구축과 고객 확보에 집중하여 로봇 생산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형 로봇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산업 자동화 관련 토탈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제우스 관계자는 "이번에 맺어진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가 가진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서로에게 발전적 관계가 될 거라 생각하며 국내시장 공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끝.